



6월4일
금요일

보도자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국	친환경농업과	과장	이정희	팀장	박상미	☎	286-6320
----	--------	----	-----	----	-----	---	----------

최연소 유기농 명인이 키우는 ‘보성 녹차골 유기농 배’

- 조효익 유기농 명인, 자연그대로 농법으로 14년간 유기농업 실천 -

‘배’하면 전남 나주를 떠올리지만, 전남 보성에도 서러워할 만한 쟁쟁한 배농가들이 있다. 그 중 한 농가가 보성 녹차골 배 조효익 대표다.

조 대표는 76년생, 우리 나이로 46세의 젊은 영농인이자 최연소 유기농 명인이다.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배 과수원에서 25살의 젊은 나이에 친환경농업을 시작했으며 지난 2019년 과수분야 유기농 명인으로 선정됐다.

젊지만, 결코 짧지 않는 배농사 경력 속에서 조 대표만의 친환경농업이 이뤄졌는데, 그는 이 농법을 ‘자연 그대로 농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의 ‘자연 그대로 농법’은 자연 풀과 친환경 석회유황을 적극 활용하는 농업이다. 살충제로는 때죽, 마삭줄, 제충국, 장록 추출액 등 4종을 활용하고, 살균제로는 친환경 석회유황, 보르도액을 사용하며, 천연영양제로는 죽순, 아카시아 추출액을 사용하고 있다.

과수는 병해충에 약해 한 번 피해를 입으면 수확을 못하고 회복하는 기간이 길어 유기농 재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산속에 따로 떨어진 배 과수원에서 병해충 발생이 낮은 것에 착안해 풀 관리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토양관리를 위해 유기농 퇴비와 낙엽, 전정가지 등을 함께 작업해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천적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적당한 높이의 풀관리와 함께

배나무 해충 방제 트랩과 교미교란제를 설치하고, 유기농업자재로 고시된 총제와 은행추출물 등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의 천연 약제를 사용한다.

조 대표의 녹차골 배는 일년에 4번 이상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한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순천대 친환경농업센터, 인증업체 등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검사체계를 가지고 있다.

“친환경 배의 생명은 소비자와의 약속이다. 우리가 생산하고 유통하는 배는 마지막까지 모두 친환경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강력하게 인증 검사를 실시하여 매년 전남 유통망을 뛰어 넘어 전국을 누비고 있다.

조효익 명인은 “친환경농업은 많은 농가가 함께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힘들어도 소득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농업회사법인 (주)녹차골 대표인 그는 자신이 현장에서 익힌 유기농법에 대한 노하우와 재배기술을 지역 농업인과 공유하고, 농가들이 수확한 배를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 등 지역 농가소득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